

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 개장 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사무국입니다.

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 개장이 결정되었으며,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서울크리스마스마켓은 일반상인(핸드메이드·체험) 품목만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은 현재 2021년 12월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을 와해시켜왔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있기 전까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푸드트럭 상인 분들과 일반상인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먹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이는 서울시 대표 축제의 장으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소상공인 분들의 새로운 도전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0년 1월 감염병의 확산 이후 지역축제 방역조치에 따른 행사장 내 '취식금지' 규제는 푸드트럭의 실질적인 판매 활로와 직결되어 2021년 12월 현재까지 판매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푸드트럭 상인 분들의 대체 판로 지원을 위해 구호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며 감염병 위기가 사그라들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또 야시장의 개장을 기다리며 현재 푸드트럭 상인분들은 행사장 내 취식 제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합하여 다방면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상인분들이 당면한 규제의 합리성과 앞으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을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워드코로나와

함께 판매 활로를 회복하여 본래의 장으로서 푸드트럭 상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만, 더는 결정을 지체할 수 없기에 일반상인 품목으로만 구성된 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 개장을 추진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비록 감염병 위기가 만연한 채로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지만, 곧 다가올 2022년에는 푸드트럭 상인분들과 일반상인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온전한 형태의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지난했던 그동안의 시간들을 모두 잊을 만큼 건강하고 즐거운 야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

- 운영기간 : 2021. 12. 23 ~ 12. 31
- 운영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
- 참여대상 : 2021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일반상인 합격자

일반상인 서울크리스마스마켓 1일 참가비
재난상황의 심각성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참여상인의 야시장 참가비 납부를 면제함

※ 운영시간 및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긴급히 결정 됨에 따라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세부사항은 신속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